우암학원 창학 69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029호 1판 (음력 5월 19일)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광주 '웨딩의 거리' 사라진다

동구 서석로 웨딩숍 2000년 대 초반 결혼남녀의 '필수 코스'
5년 새 절반이 문 닫고 20여 업체 남아…곳곳 '임대' 딱지만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로 '웨딩의 거리'. 충장로 상가와 70m 정도 떨어진 웨딩의 거리는 10분이 지나도록 행인 한 명 찾기가 힘들었다. 웨딩의 거리를 알리는 조형물 옆 상가에는 '임대' 딱지들이 나붙어 있었다.

광주 동구 '웨딩의 거리'에서 웨딩숍이 사라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웨딩의 거리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5년 새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다. 〈관련기사 3면〉

6월 현재 동구 서석로 230여 m 구간에 조성된 웨딩의 거리에는 2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원래 웨딩숍이 자리했던 건물 4곳은 길게는 2년 전부터 영업을 중단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다. 이날 찾은 웨딩의 거리에선 한 두쌍의 예비부부가 상담을 받고 있을 뿐 대부분의 가게에선 손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웨딩숍의 빈자리는 최근 남성 맞춤 의상실들이 채우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긴 4년 전부터는 웨딩의 거리 인근에 커피전문점과 주점, 음식점 등이 들어서 신흥 가두상권으로 떠올랐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을 겨냥한 네일아트점, 액세서리점도 잇따라 생겼다. 화려한 조명이 흐르는 '구시청' 상권과 달리 웨딩의 거리는 손님이 없는 탓에 오후 6시만 되면 하나같이 셔터를 내리면서 상권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웨딩의 거리에서 25년 동안 웨딩숍을 운영해 온 강순례(50) 김가웨딩 대표는 "웨딩의 거리는 5~6년 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폐업한 점주들 가운데는 대형 웨딩업체에 들어가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숍의 경우 매출이 6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없을 뿐 더러 지난 2일은 웨딩업계가 길일로 여기는 '손없는 날'이었지만 하루에 손님 한 명을 만나기 힘든 게 현 웨딩산업의 현실이다.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조성된 웨딩의 거리는 광주에서 결혼하는 남녀들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였다. 같은 시기에 결성된 광주웨딩협회는 호황에 힘입어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도와 저소득가정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7년 전 광주웨딩협회가 웨딩의 거리에서 개최하려 했던 결혼박람회가 무산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현재 광주웨딩협회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충장로 상권이 붕괴되면서 웨딩업체는 광주 상무지구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3월 웨딩마치를 올린 김민정(32)씨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 계약을 상무지구에 있는 한 웨딩컨설팅 업체와 맺었다. 김씨는 "웨딩의 거리는 집과 직장에서 다니기에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무지구 업체를 선택했다"며 "발품을 팔면 계약금을 1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서 (웨딩의 거리에 있는 가게를 이용하라는) 부모님의 권유에도 웨딩의 거리를 고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웨딩의 거리 일대 도로 양방향에 28개면 규모의 무인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빼고는 이 구역 상권을 위한 지원제도는 따로 없다"며 "오는 2024년까지 예산 300억원을 들여 인쇄의 거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충장로·양림동 등을 연결한 '광주 도심관광트레일' 사업을 통해 웨딩의 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정은·시진핑, 금수산태양궁전서 친선 과시

단독·확대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등 논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과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의 최고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이날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이뤄져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중국 인민일보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1박2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은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 주석을 환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영접 행사를 갖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서 극진하게 대우해 눈길을 끌었다.

영접 행사가 끝난 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양국 현안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탄 전용기가 20일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 있다. 〈CC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과 직후 각각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이뤄져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관련 '양보안'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시 주석의 역할이 이번 방북에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지는 못하겠지만 비공개로 수십만t의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는 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광주일보 지면이 더 알차집니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스토리'

중앙SUNDAY와 기사교류
국제·문화 등 고품질 뉴스

올해로 창사 67주년을 맞은 광주일보가 또 한번 새로운 변신을 합니다.

광주일보는 중앙일보, JTBC와 함께 중앙그룹에 소속돼 있는 중앙SUNDAY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기사교류를 시작합니다. 2007년 창간된 중앙SUNDAY는 국내외 석학들의 인터뷰와 깊이 있는 칼럼, 전문가들의 콘텐츠와 대기자로 구성된 기획시리즈 등으로 오피니언리더 독자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일보의 토요일자를 대체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는 매주 금요일자에 중앙SUNDAY의 다양한 콘텐츠 가운데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될 만한 주요 기사들을 선별해 게재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자부터 김정운 문화심리학자의 스페셜리포트 '바우하우스이야기'를 연재하는 등 국제·건강·문화·라이프스타일 등 고품질 뉴스를 선보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FINA, 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장 풀 공식 인증

다음달 12일부터 펼쳐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모든 경기장 풀(수영장·pool)이 최종 점검 끝에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20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과 와킨푸욜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5명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광주에 있는 5개의 경기장을 실측해 수영장과 수조 등 경기 풀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공식 경기풀은 경영 및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주 경기장과 아티스틱 수영이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 경기풀, 하이다이빙이 열리는 조선대 축구장 임시풀, 수구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 임시풀이다.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앞바다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식 인증이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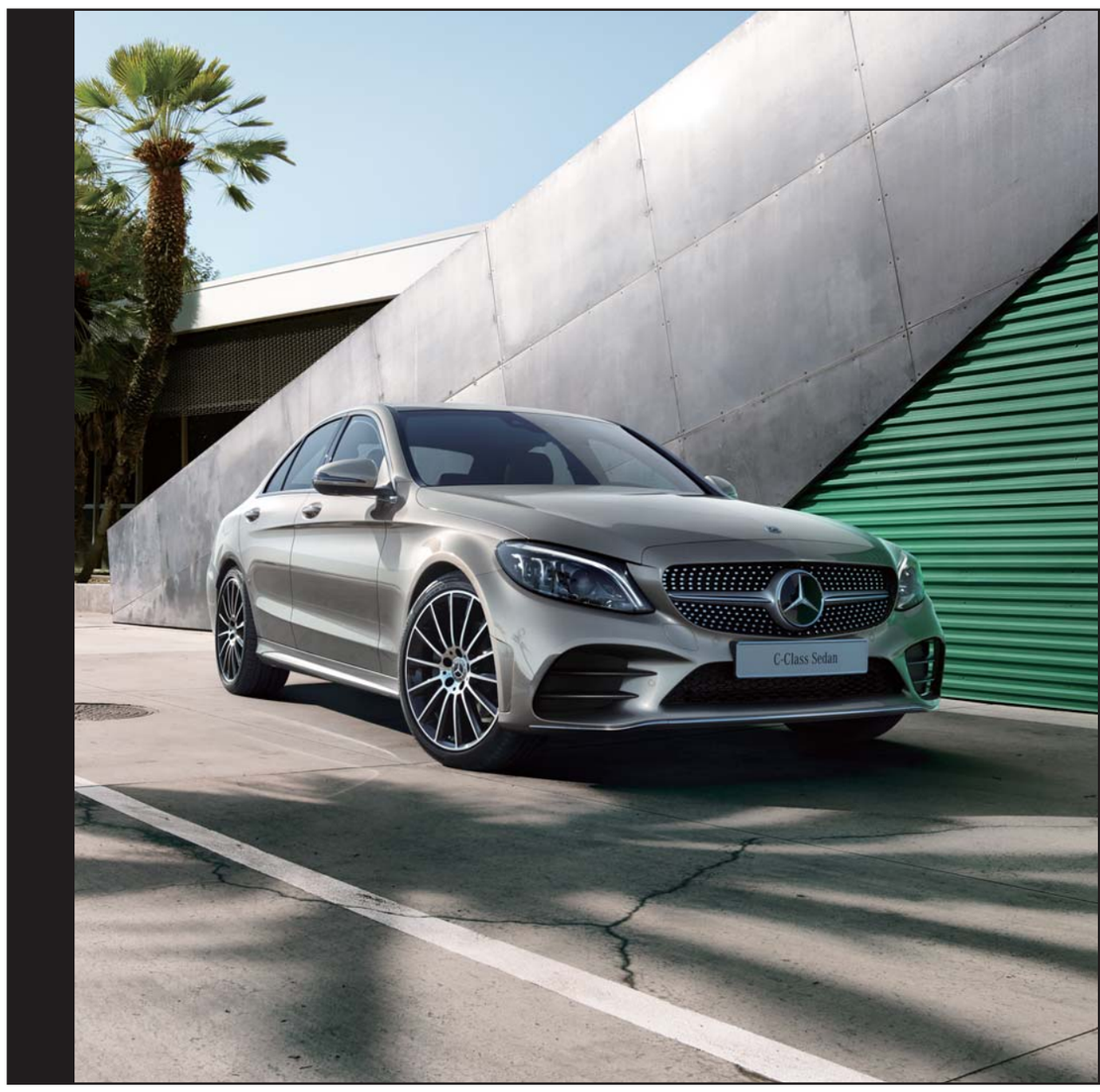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세계기록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FINA의 경기장(풀)의 공식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와킨푸욜 FINA 시설위원장 감독 아래 임시풀 제작사인 밀싸풀(이탈리아) 관계자와 공인 측량사 등이 함께 경기풀 공인 절차를 진행했다.

공인 점검은 경기풀의 길이와 수심, 스타팅(Starting) 블록, 레인마킹 등에 대한 실측을 기록해 공인하고, 오는 7월초 경기용품이 모두 비치되면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FINA의 공식 공인으로 7월에 펼쳐지는 광주수영대회에서 나오는 각종 기록과 신기록 등은 앞으로 세계 공식기록으로 남게 된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이번 점검으로 광주와 여수의 수준 높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_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